

“청소년이여! 문화유산 공부하자”

문화재 보호재단
‘전통예술’ 등 3종
문화유적지도
홍보만화 등 11월제작
초·중·고교 보급

단(이사장 김진배)이 깊이가 있으면서도 알기 쉬운 문화유산 관련 교육용 도서를 제작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무형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전통예술>, <한국의 전통공예기술> 등 도서 3종과 문화유적지도, <문화유산, 그거 얼마짜리죠?>라는 홍보만화가 그것. 오는 11월까지 제작, 초·중·고교의 일선교사와 청소년들에게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교양도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축·조각·금속공예·회화·전적·도자기 등 각종 유형문화재를 시대별로 정리하며, <한국의 전통예술>은 음악·무용·연극·놀이·의식 등 무형문화재 중 전

통예능분야(한국의 전통공예기술)은 토기와 도자기를 비롯 금속·옥철·약기·단청·염직·목석 등 전통공예분야를 소개한다.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 최몽룡교수(서울대 고고학과)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하며 각각 국권 5백쪽 내외로 2천부를 보급할 예정이다.

문화유적지도는 안내원 없이 보고 싶은 문화재를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보기 쉽고 휴대하기 편한 24절판 3백쪽 내외의 책자로 제작된다. 이 책자는 학술적 가치보다는 대중성에 비중을 둘 계획이다. 전국을 7개 영역으로 나눠 시도군별 연혁·종속·인구·문

화적 특징 등 지역개관과 함께 박물관·공연장·국도입공원·해수욕장 등 관광레저휴양지 등을 수록,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 2백여개의 지도와 5백여건의 문화재 사진이 수록되며 2천부가 제작 배포될 예정이다.

홍보만화 <문화유산, 그거 얼마짜리죠?>는 20쪽 내외로 10만부를 발간,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허육씨는 “되도록이면 알기 쉽게 우리문화를 소개해 누구나 문화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기서 기자

불심시심 (99)

애정의 그루 자를까

情愛吾今欲釋然 (정애오금욕석연) 정과 사랑 이제는 뗄쳐 버리려 하나
運爲無奈每逢緣 (운위무내매봉연) 운수처럼 한시 인연을 만나니 어쩌나
偶分袖袂柔羅襪 (우분수매유강박) 우연한 이별 소매에 여린 창자의 번뇌 일고
長憶容顏片貌懸 (장억용안편묘현) 길이 기억되는 얼굴 꿈 속에 매달리는 모습
根結塵囂事畢斷 (근결진향사미단) 속세에 맺은 뿌리가 차라리 자르기 쉽지만
燈迷劫海苦難傳 (등미겁해고난편) 법등은 겁의 바다에 흐려 전하기 어려움 괴롭다
何時鍊得金剛劍 (何時鍊得金剛劍) 어느 때나 이 금강의 칼 단련시켜
斬破深株莫使連 (斬破深株莫使連) 저 깊은 그루 잘라 더 잊지 못하게 할까 (참파심주막사연)

이 시도 용담대사의 시이다. 제목이 '정애(情愛)'이다. 승려이기 이전에 한 자연인으로서 끊기 어려운 사랑과 정을 솔직히 고백한 시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용담의 시세계를 말하면서 "정으로 정을 끊는 시"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의 의식해서 한 말이었다. 참다운 깨달음이란,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참 모습을 보는 것이지만, 진리의 참 모습을 알고 나면, 속인의 세속이 바로 진리의 현실임을 아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곧 세속을 벗어나는 출세에서 다시 그 벗어난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세간의 상태를 보인 것이라 하겠다.

시에서는 사랑과 정을 이제야 놓으려 한다 하였지만, 왜 지금 이겠는가. 스님의 수도는 항상 이 세속의 애정을 단절하려는 수련이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라 한 표현도 기실은 겸손의 말이다. 그러나 운수라 하든, 작위

라 하든,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 하면 끊기 어려움이 또한 이 정과 사랑이다. 스님은 이런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정과 사랑의 실상을 음미해 보려 한 것이다.

이별을 두고 애 끊는 아름다워 하고, 이러한 단장의 아름다워 찾아오는 것은 항상 꿈속의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업의 근기로 맺어진 것이니, 이것을 이기려면 세속적 뿌리를 끊어야 한다. 여기에서 출세간의 벗어남이 있으니 이 벗어남은 쉽게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의 법등이 흐리면 이 벗어남의 진리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저 금강의 칼날을 갈아 단칼에 이 애정의 그루와 뿌리를 잘라 버려야 한다.

대사의 이 시는 이렇듯 출세세간의 어려움을 읊었다 하겠다. 세속에 있으면서 세속을 벗어나는 참다운 해탈이다. 이종찬(동국대 교수)

정찬주씨 '그곳에 부처...' 출간

94년 발표 '월철' 개작



지계와 파계의 구도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불행을 구하는 두 수행자의 구도행각을 다룬 구도소설 <그곳에 부처가 있다>(좋은날 펴)가 출간됐다. 이 소설은 94년 가을 <월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던 작품을 개작한 것이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20여일 동안 해초스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찾아 인도순례에 나섰던 저자 정찬주씨(사진)는 일반인들이 인도여행시에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품 속에 생생한 체험을 녹여내고 있다.

<그곳에 부처가 있다>는 황룡사 9층탑을 모태로 부처님 진

신사리를 모실 천불탑 건립을 일생일대의 큰 서원으로 세운 지음스님과 참선수행자로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범상스님이 출세교화와 수행이라는 다른 길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소설에서는 두 스님의 대립·갈등구조가 천불탑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사이자 컴퓨터 매니아인 최림이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스님들의 수행을 보며 자신 속에 내재한 불성을 깨닫는 것으로 두 스님의 갈등이 해소된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빈곤과 공허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현대시에 반영되고 있는 선시적 불교적 요소가 보여주는 형이상학적 깊이와 특정한 사유의 틀은 깊은 감동의 세계를 경험케할 것이다."

송명희 교수(부경대)는 8월27일 부산불교문화인협회(회장 채낙현) 주최의 불교문학 여름 세미나에서 <현대시의 불교적 가능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대 주류시인들의 작품을 분석하며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선시적 경향이 21세기의 시가 종말론적 세계관과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송교수는 향가로 시작되는 전통시의 불교적 색채가 현대의 선시풍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통해 불교라는 지적 배경이 매우 친숙한 것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남선 시인의 시조집 <백발변보>로부터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40년대 서정주 시인의 <화사집>, 60년대 고은 시인의 <피안감성>, 90년대 불교적인 기법을 채용한 황지우 시인에 이

현대시의 선시적 요소 종말론적 인식 '극복열쇠'

송명희교수 '현대시의...' 발표

르기까지 근현대시 속에 나타난 불교적인 색채를 선시와 불교시로 구분해 접근했다. 황지우 시인의 선시는 선사의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선시의 기법을 모방하고 채용한 선시의 패러디라는 표현을 통해 선시의 현대적 변용을 풀이하기도 했다.

송교수는 현대시에서의 선의 수용이 선시의 서정적 구조를 따른 문학양식인 만큼 깨달음의 체험을 통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와 본질의 탐구로 현대시에 부족한 깊이를 부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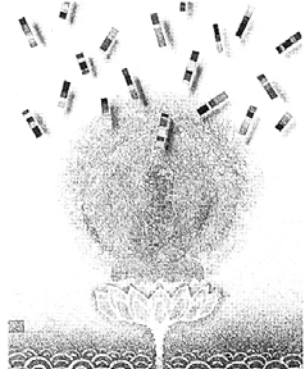
불교시로는 '생의 유한성'을 시적 화두로 삼고 있는 오세영 시인의 내면세계가 고스란히 배어간 시집 <무명연시>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작품들이 담긴 윤재림 시인의 시집 <황천반점>은 유마거사의 불교행을 본받았듯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 이영일 시인의 <금생을 찾아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했다.

송명희 교수는 "불교적 상상력과 세계관은 현대시가 빠지기 쉬운 종말론적 인식, 허무주의와 철학적, 형이상학적 깊이의 결핍을 극복해나갈 하나의 가능성과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발표를 결론지었다.

김지연 기자

10·28일 동평아트센터

알기쉬운 불교미술도



동국불교미술인화회 '지장시왕(地藏十王)'을 주제로 한 테마전을 마련하고 전시회에 맞춰 <알기쉬운 불교미술>을 발간한다.

10일부터 23일까지 동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동국불교미술인 회원전은 지장시왕의 세계를 주제로 한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전연회회장은 "모든 지옥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날로 각박해지고 혼탁해져 가는 현대사 회화에 두루 미치어 정신적 풍요가 있는 밝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지장시왕의 사상을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도 발간되는 <알기쉬운 불교미술>은 우리나라 전통미술의 집대성인 사찰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불교미술개론서이다.

화제의 쟁점



시진으로 보는 운주사의 어제

전남대박물관(관장 전형택)이 오는 26일까지 전남대 용봉관(구 학교본부)에서 운주사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륵>의 저자인 독일인 요한 힐트만교수가 기증한 운주사 사진 37점을 중심으로 <조선고적도보>(6·7권, 1920년)에 실린 운주사 사진 6점, <전남사지>(1917년)에 실린 운주사 사진 1점 등이 선보인다. <조선고적도보>와 <전남사지>에 실린 사진들은 1920년대 이전의 사진들이고, 힐트만교수가 기증한 사진들은 1980년대의 중광들이라 최근 대형불사로 변해버린 오늘날의 운주사와 비교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소식

오느름 국악공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악실내악단 오느름(음악감독 김희경)이 4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국악원 우면당에서 특별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축연무'(박봉훈 작곡), '가야금 삼중주' '창부터림을 주제로 한 피리협주곡'과 김희경 작곡의 찬불가 '운주사' 이연실작의 '만들레' 이흥학작의 '박씨 물고은 세비' 등 모두 10곡이 연주된다.

서영석씨 개인전

불자 화가 서영석씨가 '자연속의 시

간'을 주제로 한 시리즈전을 오는 7일까지 부산 롯데화랑(051-810-3788)에서 열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는 절제된 화법과 구획진채로 그린 '달마' '불심' 등 5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석굴암 CD타이틀 출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이 삼성전자에서 CD를 타이틀로 출시했다. 석굴암의 과학적인 조형성과 역사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타이틀은 다양한 각도의 석굴암 사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확대·축소가 가능하며 석굴암의 구조와 내용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매 장마다 통일된 화면을 배치하고 간결한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해 컴퓨터를 모르는 일반불자들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석굴암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원각사비 보호각 공사

서용시는 탑골공원 안에 있는 대원각사비(보물 제3호)(사진)가 보호시설물 없이 방치된 채 비바람에 마모되는 것을 막기위해 보호각을 설치하기로 하고 27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보호각은 정면3칸, 측면3칸의 사모지붕 형식의 전통한식으로, 내년 8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口)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영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매거진> 동량 안내 *

- 매일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분상·불화·목공예 등)
- 매일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옆)
-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시오. (02) 587-6613

김현준(金鉉竣)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원장 <법공양> 발행인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지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예신관·관음염불·자광삼메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회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저서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워준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